다산포럼

조영철

권력을 시장에 넘겨서는 안된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다른 사회제도들과 연계된 하나의 불완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으로 시장 대 국가라는 학문적 전선이 형성되었고 이에 관한 많은 논쟁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바람직한 논쟁 구도라고 할 수 없다. 시장 대 국가의 논쟁 구도가 애당초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은 시장, 국가 모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전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의 연계된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시장실패 혹은 정부실패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생산적 성과를 낼 수 없다. 생산적 논쟁이 되려면 우선 시장도 다른 사회제도들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불완전한 제도로 독점, 정보비대칭성,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등 다양한 시장실패 요인을 안고 있으며, 국가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관료주의, 과잉규제, 부패, 공공부문 내부자 담합과 비효율 등 관치경제에서 이미 보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실패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불평등, 실업, 노령화 문제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북유럽모델을 부럽게 바라보면서도 북유럽모델과 같은 큰 정부 모델을 우리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치경제의 폐해를 많이 보았고,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매우 큰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부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공공부문을 불신하는 한, 북유럽모델과 같은 큰 정부모델은 신자유주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모델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 민주적 통제성을 높이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즉 정보공개, 엄정한 성과관리, 예산 낭비 감시, 지방분권, 개방형 직위 확대, 시민 참여, 시장성이 높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혹은 민간이양 등 공공부문과 정부 개혁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만의 과제가 아닌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념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부실패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시장실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큰 정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별개의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연계된 문제다. ‘삼성공화국’ 현상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체제가 국가기관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결합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시장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기득권 옹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처럼 1원 1표의 시장원리는 언론과 국가기구를 포섭하고 오염시키면서 한국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1원 1표의 시장과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작동원리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를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병행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확산되고 다른 가치관들을 압도하면서 시장 대 민주주의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무너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동의한다고 해서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고 천연스럽게 말하면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권력을 시장에 넘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기업유치 투자환경 조성에 달렸다

광주·전남지역도 여건만 조성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와 전국 18개 기업은 12일 600억원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주에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 기업이 들어서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 생산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수도권 소재 LED(발광다이오드) 기업인 이리콤㈜ 등 18개 기업과 60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 협력업체가 4곳, 기아자동차 2곳, 포스코와 한전 각 1곳 등이며 나머지 업체도 대부분 벤처기업이다. 이번 MOU 체결로 8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 ㈜창원특수강 등 영남권 금형관련 3개 업체의 이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영남권 기업이 광주에 집단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들 영남권 기업의 유치는 광주시가 금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 최초의 ‘금형시험생산센터’ 비롯한 금형집적화 단지 조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기업의 이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유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공장건설에 유리한 부지 제공과 지자체의 행정적 뒷받침, 우수한 인력 제공 등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기업은 찾아 올 수밖에 없다. 건전한 노사문화도 중요하다.

광주시의 기업유치는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기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시민의식과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등 지역사회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광주가 살길이다.

신당-민주 후보단일화 국민공감 얻어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과 대통령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분당과 탈당, 창당을 거듭해온 범여권이 4년 2개월여만에 통합민주당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본격협상을 시작한 지 1주일도 안돼 후보연대를 넘어 합당에 합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당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한 것은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로 대선구도는 급변하고 있으나 범여권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절박한 상황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수진영의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60%를 넘고 있지만 단일화에 합의한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에 문국현 후보를 포함한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은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지리멸렬한 양상이다.

합당선언은 민주개혁세력이 민주당 분당 사태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당은 합당 및 후보 단일화가 호남 등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를 넘어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하면 보수세력과의 ‘1대1’의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합당과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복잡한 협상과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물리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다. 내년 총선까지 감안하면 불만과 갈등이 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선 ‘도로 민주당’,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후보단일화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공감과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국민들은 탈당과 분당, 합당, 정계복귀 등 정치권의 상식밖의 행동에 실망해 있다. 양당은 아무런 잡음 없이 매끄럽게 합당 및 후보단일화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서일권

씨앗과 열매, 나눔의 공동체

“열매를 보면 씨앗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지만, 씨앗을 보고 열매가 몇 개 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에서 -

한 알의 작은 씨앗에서 아름드리 거목이 자라고, 그 나무에서 결실 맺은 수많은 열매들이 또 수백, 수천의 씨앗으로 이어지는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마다 제곱, 세제곱 보다 더 커져만 가는 ‘나눔의 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2002년 10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아름다운 가게가 문을 열고, 이듬해 2003년 12월 지역에서는 최초로 첨단지구에 위치한 빅마트에 아름다운가게 광주첨단점이 문을 열었을 때, 재사용품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처럼 아름다운 가게가 100호점까지 문을 열게 될 것을 상상했던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가게도 많은 재사용품 가게들처럼 짧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이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현재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80여개의 아름다운가게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7년까지 100호점 개설을 목표로 수많은 기증천사들과 기업, 단체 서포터의 도움과 5천여명의 자원활동가들과 180여명의 상근 일꾼들이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고, 비록 연내 100호점이라는 매장개설 전략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2008년을 맞이하고 얼마가지 않아 우리는 ‘100번째 프로포즈’ 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따뜻한 나눔이 있는 100번째 아름다운 생활문화공간’을 시민들 품에 안겨드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나눔장터에서 자신이 아껴 쓰던 물건을 내다 팔고 생긴 수익금 일부를 장애 친구들, 난치병 친구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아이들의 고사리 손에서, 갓난아이를 걸음마에서 유치원까지 키워내고 진한 사랑의 내음이 물씬 묻어나는 옷들과 아이용품들을 내 놓는 젊은 엄마의 수줍은 미소에서,아끼고 다시 쓰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애장품들을 건네주시는 아름다운 노년의 인정어린 눈빛에서 아름다운 가게는 넘치는 나눔의 마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나눔의 작은 씨앗들이 모여 광주지역에서만 올한해 1월~10월까지 5천300여만원의 소중한 결실이 맺혔고,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 땀 흘리는 풀뿌리 단체에게 전해 질 것입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시민들의 기증품을 손질해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전해진 금액이 전국적으로 40억원이 넘는데, 이 모두가 시민 기증천사 한분 한분의 작고 소중한 ‘나눔의 씨앗’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하나하나 별개의 구슬같이 아름다운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개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그 하나가 다른 것들과 떨어져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서로 그 빛을 주고받으며 뗄 레야 뗄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사는 세상, 바로 ‘나눔의 인드라망’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 팀장〉

찰칵! 동물세상

코끼리 타기의 미안함

‘차라리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코끼리 등에 올라탔으면…’ 묵직한 쇠뭉치 안장도 모자라 두 명의 관광객에 조련사까지 코끼리 등에 올라탔다.

등 위에 실린 무게만 200㎏에 이른다.

그래도 개의치 않는듯 했다. 묵묵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살을 헤치고 산길을 지나는 등 늘상 다니던 길을 걸어갔다. 가끔 던져주는 몽키 바나나를 받아먹으며 조용히 걷기만 했다.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더 달라고 심술을 부리지도 않는다.

태국에서의 1시간 남짓한 코끼리 트레킹은 이렇게 이뤄진다.

코끼리는 매우 힘센 동물이다. 넘쳐나는 힘은 밀림을 개척하여 새로운 길을 내고 다른 동물들의 이동 통로를 만들었던 원천이 됐다.

코끼리를 흔히 ‘밀림의 개척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금 그 힘은 다른데 쓰인다. 몇 몇 인간의 돈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는 것이 전부다. 축구나 농구를 하는데 쓰기도 한다. 이른바 코끼리 쇼를 통해서다. 덩치 큰 동물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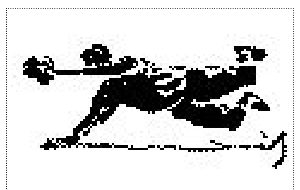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탈 때나, 코끼리 쇼를 보면서도 즐겁기보다 불편한,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이유는 뭘까.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無等鼓

명장과 지도력



프로야구 SK의 김성근 감독은 지난달 말 한국프로야구의 최강을 가리는 한국시리즈에서 뼈아픈 작전 실수(?)를 두번이나 했다. 먼저 1차전, 4회 1루에 나간 이진영이 냅다 2루로 달리다가 아웃을 당했다. 그날 도루사인은 코를 만지는 것인데, 김 감독이 무심결에 콧물을 닦자 이진영은 빨리도 눈치채고 도루를 감행했고, 결국 그는 제명에 못살고 ‘비명횡사’했다.

다음 2차전, 역시 도루사인이 문제였다. 1회 김 감독이 의자 오른쪽 팔걸이에 팔을 걸치며 몸을 기울였는데, 1루에 나간 조동화가 느닷없이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됐다. 그날 도루사인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이었다. 물론 1, 2차전 모두 졌다.

그후 3차전부터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경기를 맡겼다. 자율권을 부여하고 선수들의 기를 살리는데 주력했다. 3차전부터 6차전까지 타순 한번 바꾸지 않았고 결국 2패 후 4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SK 우승의 원동력은 감독, 코치와 선수가 하나로 똘똘 뭉친 조직력과 팀플레이었다. SK에는 다승, 승률은 물론 타격, 홈런 등 14개 주요 부문의 1위는 물론 상위권에도 드는 선수가 없었지만 선수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팀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땀흘리며 뛰었다.

지난 11일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리그 1위 성남을 누르고 포항을 정상에 올려놓은 ‘1등공신’도 다름 아닌 조직력이었다.

포항의 베스트 11에는 거물이 없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2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잠깐 달았을 뿐 스타가 없는 팀이다.

하지만 감독 파리아스는 다른 팀에서 버린 선수들을 모아 조직력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는 운이 좋아 우승한 게 아니라 팀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선수들이 있어 우승했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창의적으로 뛰게 만드는 조직력과 팀플레이, 두 명장들의 돋보이는 지도력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kihh@

학자금 대출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해서야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갑자기 탄광으로 가서 채탄 광부로 일하겠다는 친구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다.

갑자기 무슨 탄광일이냐고 물었더니 지난 4년간 대학 재학중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해 갚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친구 집은 대학 학자금을 대주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사정을 알아보니 집에서 받은 수업료는 전부 주식 투자에 쏟아붓는 대신 학자금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냈다는 것.

명문대학이니 졸업만 하면 곧바로 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 한번 빌려쓰기 시작한 뒤 계속 대출 받은 금액이 3천 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쓰면서 졸업 뒤 갚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엉뚱한데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나중엔 어떻게 되겠지, 일단 쓰고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사고 방식을 버려야 겠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비방·흑색선전 선거운동 구태 악순환 끊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 치러진 정당별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은 과거 선거운동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11월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선거운동방법이 다시 동원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선거운동이란 경쟁행위이고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과열경쟁이나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네가티브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어질 개연성이 높다.

아쉽게도 과거 선거운동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전통적인 관계를 동원하거나 금전살포를 통한 유권자 매수와 상대후보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행해졌고 유권자들 또한 그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정책정당이 아니면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정책경쟁이 아닌 선거운동은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정치권이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유권자들도 네가티브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보다는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을 한 후보자보다는 정책에 의한 공정경쟁을 한 후보를 선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한다면 민주국가의 실현이 한층 앞당겨 질 것이다.

▲이성민·광주시 북구 운암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